

기초치의학의 열악한 여건과 발전을 위한 제안

충실한 기본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의 한축으로

김강주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미생물학교실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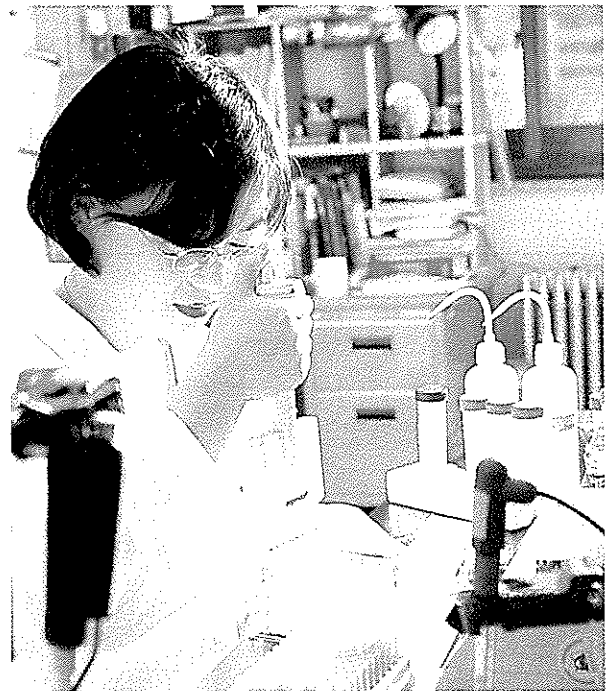
기초치의학교실의 교수실은 실험준비물 창고?

현재 많은 치과대학 캠퍼스는 의료원 산하에서 의과대학과 함께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의료원은 주차관리란 명목아래 연구원이나 교수들 조차도 마음대로 차를 가지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 치과대학 캠퍼스는 병원 직원과 환자 내방객들의 주차장으로 변해 버린 것이 사실이다. 영안실이 치과대학 근처에 있는 경우, 의료원이 캠퍼스까지 관리하는 사태도 발생한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영안실이나 인터넷도 엄연히 학교 캠퍼스 안에 세워져 있으므로 학교의 관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입 및 port 증설에 의료원의 선처만 바라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의료원 및 의학계열 체제하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은 치과대학 및 치과대학 병원이 독립하여 운영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생각된다.

어느 법학도의 말에 의하면 “권리위에 누워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한다. 당연한 권리라도 자신이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말이다. 의료원의 월권 행위는 대학 본부에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더불어 치과대학이 커나가려면 어떻게 뺏어나가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고 학교 당국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기초치의학교실에도 임상치의학교실의 외국에 해당하는 실험 준비실이 필요한 데, 실험준비실이



국내 치의학계는 기초치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임상치의학의 발전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없어서 기초 교수의 연구실은 실험준비실에 쌓아 놓아야 할 물건으로 창고 수준이니 어떤 후학이 기초 교수 요원으로 미래를 같이 하겠는가?

기초치의학 요원 확보에 관한 제안

기초치의학과 임상치의학은 상호 대립이 아닌 보완의 관계로 발전해야

현재 치과대학의 기초요원은 의과대학이나 한의과

대학보다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치대생이 기초 치의학보다는 임상 치 의학을 선호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렇게 학생들이 임상 치 의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선 임상 치 의학을 해야만 돈을 번다는 생각과 기초 치 의학을 경시하는 학문적 분위기가 주된 원인이라 생각된다.

일례로 어떤 교수는 “학생들이 치과대학에 들어온 이유는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이지 기초치 의학을 전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도 말씀한다. 그러니 기초 치 의학은 의과대학이나 의료원으로부터 설움 받고, 임상 의의 선입견에 움츠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치과대학을 치과 의사 양성소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치과대학은 치 의학의 발전을 통한 인류의 의료 복지 증대와 올바른 교육을 통한 양질의 치과 의사 배출이 그 존재 의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치과대학이 하나의 의료 기술만을 가르치는 기관이라면 치과대학이 6년제 학교가 될 이유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일반 개업 의사가 치과진료하는 것이 고도의 난이도를 갖는 high-tech은 아니지 않은가?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기초 치 의학의 위축은 치과대학이나 치과 의사들의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치대생들이 자꾸 기초를 기피할 때 현재의 기초 치 의학 과목들은 자연계열 생물학 전공자들에게 넘어가거나 또는 의과대학이나 자연대학에 통폐합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기초치 의학이 의과대학이나 자연대학으로 넘어간 예가 적지 않다. 그 결과 치과대학은 응색하기 그지 없는 처지를 면하기 어려워진 대학도 많이 있다.

이렇게 기초치 의학이 경시될 때 치과대학은 그저 의과대학의 부속기관처럼, 그리고 치과 의사는 그저 의사보다 못한 열등한 의료인의 한 종류로 그 위상이 전락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의 치과대학과 치과 의사가 의료계의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려면, 임상치 의학의 발전에 걸맞은 기초치 의학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66

치과대학을 치과 의사 양성소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치과대학은 치 의학의 발전을 통한
인류의 의료 복지 증대와 올바른 교육을 통한
양질의 치과 의사 배출이
그 존재 의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99

생각된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이 기초 치 의학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치 의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임상 치 의학을 99명이 전공한다면, 1명 정도는 기초치 의학도 전공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수님들의 시각이 기초 치 의학과 임상 치 의학은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로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시각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현재 치과대학 기초 치 의학 분야는 임상 치 의학 분야에 비하면 응색하기가 그지없다. 기초 치 의학이 꽃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기를 부탁한다.

기초 치 의학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기초 치 의학 전공의들이 임상 치 의학 전공의들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면 좋겠다. 6년제 대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발령 때는 4년제 출신과 같은 호봉으로 출발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문제는 치과 의사 출신 조교의 치과 의사 직무수당을 상향 조종하면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 임상 교원은 박사학위가 없어도 전임 교원 발령이 나는데 반하여 기초 교원은 박사 학위가 있어야 만이 발령이 나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업필이 따지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 교원의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롭게 심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및
생물정보학 (post-genomics, proteonomics)
시대에 튼튼한 기초 치의학의 기반 위에
임상 치의학이 무한히 성장하고,
더 나아가 산학 일체의 정신으로
어려운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한 축이 되는
학문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에 충실했으면 한다

”

왜냐하면 환자의 건강에 임상 교원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임상 교원도 박사 학위가 없어도 발령이 날 수 있는데, 기초 치의학을 전공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사상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도 해결하여 기초 치의학 전공자들이 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발령을 받는다고 해도, 임상교수에 비해 급료가 적어서 같이 발령받은 기초 교수가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지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

임상실험실습실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기초 치의학 실습실은 수도 시설이나 계수대에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곳에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학생들의 실험 실습 과정도 임상 실습의 poly clinic 과정과 같이 적절 기초 치의학 실험실에서 실험 실습하는 과정을 도입하였으면 한다.

대학원 제도 및 학회 재정

병역특례제도 도입으로 병역의무 대체해야

현재 많은 치과대학의 대학원운영실태를 보면 전문의와 치의학 박사의 개념이 제대로 서지 않아, 대학원이 치과의사 보수교육장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은 논문한편 쓸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기초치의학분야에도 다른 연구소처럼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여 기초치의학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에 종사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과제이다.

기초치의학관련 학회 사정을 보면, 임상 관련 학회는 회원 및 예산이 넘쳐나고 있으나, 기초치의학 관련 학회는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는 고사하고, 연례 학술대회의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전체 치의학회를 결성하고, 1년에 한 번의 학회는 국제치과연구학회 기간에 모든 치과 분과 학회를 진행하여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물론 춘계 학회는 각각의 학회 기간에 개최하는 것도 운영의 묘라 생각된다.

또한 교육부 후원 기초치의학 학술대회와 유사한 국가 지원 연구비 및 행사 후원을 기초치의학협의회에서도 기초의학협의회와 대등하게 따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초 치의학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하이테크 사회에 대한 대비와 도전정신, 개척자 정신 키워야

좋은 내신 성적에다 고생하지 않고 장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다른 의학 분야보다 일찍 경제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 연구인력이 팀을 이루어 오랜 시간에 걸쳐 결과를 산출하는 high-tech 사회에 대한 대비와 도전정신과 개척자 정신으로 바꾸어야 한다.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및 생물정보학 (post-genomics, proteonomics) 시대에 튼튼한 기초 치의학의 기반 위에 임상 치의학이 무한히 성장하고, 더 나아가 산학 일체의 정신으로 어려운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한 축이 되는 학문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에 충실했으면 한다.